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준비 안 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 원내대표 축출은 결국 일어나고야 말았다. 160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정당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 행정부가 국회를 능멸하던 반세기 전 망령이 되살아날 판이다. 도대체 이 시대의 리더십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실마 했었다. 이런 수준일 것이라고는. 첫째, 이렇게 ‘과거지향적’일지는 차마 몰랐다. 한(恨)이란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과거의 한을 뛰어넘는 꿈을 펼치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만 과거의 한에 얽매이면 최악의 정치인이 된다. 그런데 왜 돌아 가려고만 하는가?

둘째, 이렇게 ‘무능’할지는 차마 몰랐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는 비상 국정 사안들이다. 경제, 외교, 민생과 같이 복잡적이고 뜻대로만 되지 않는 국정과는 달리 성의를 보이면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올릴 수 있는 위기다. 그런데 어떻게 이리 절절매고, 책임을 회피하고, 일을 피하려 드는가?

셋째, 이렇게 ‘최저 에너지’일 줄은 설

마 몰랐다. 희망의 기운을 품을 줄도, 뽀를 줄도 모른다. ‘된다, 될 것 같다, 해보자, 신난다’ 하는 분위기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누가 발목을 잡는가? 누가 연과 줄을 부활시키는가? 누가 ‘적자생존’에 목을 매는가?

넷째, 이렇게 ‘여성성’에 무지할지는 차마 몰랐다. 자기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잘 조화시키는 리더만이 균형을 이루는 철학으로 진정한 실전을 할 수 있다. 한쪽이 불구가 되면 제대로 걸을 수도, 마음껏 날 수도 없다. 여성 대통령이 여성성에 무지하다니 이 무슨 불행인가? ‘결혼도 못해 본, 아이도 안 키워 본’ 같은 편하는 결코 올바른지 못하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 시대의 후배 여성들에게 내가 곧잘 얘기해 주는 원칙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온통 부정한다. “동정을 얻으려 들지 마라, 감정적이 되지 마라. 겉모습으로 흘려라 들지 마라, ‘명예 남성’이 되지 마라!” 같은 원칙이다. 한마디로 속 빈 강정,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고 스스로

독립하고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를 위해서 여성성을 쓰라는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만 되면 동정 표 얻는 데 능수능란하다. 악수 투혼, 봉대손 투혼을 하더니만 이제는 눈물 투혼, 병상 투혼까지 한다. 아무리 선거 모습과 하더라도 대통령이 보일 모습은 아니다.

공식석상에서 ‘배신’이라는 감정적 어휘를 입에 올리며 원색적으로 화를 내고,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악수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고, 청와대 회의에 국회의장을 초대하지 않는 ‘뒤끝 작렬’은 엔간한 남자에게도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감정적 태도다. 펠시와 스타일은 남성, 여성에게 공히 필요한 것이지만 특정 집단을 향한 동정표와 감정몰이의 액세서리로 활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치란 쇼 비즈니스만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이 여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같은 여성들에게 인색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와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남성처럼 구는 여성을 흔히 ‘명예 남

성’이라고 부르곤 한다. 우리의 여성 대통령이 시대역행적인 ‘명예 남성’을 추구한다면, ‘실력과 공정과 통합과 평화’를 지향하며 열심히 뛰는 이 시대 보통 여성들은 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솔직히 여성 대통령이기에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를 나는 더 바랐다. 조건도 충분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처럼 비주류 소수파도 아니다. 김영삼·이명박 대통령처럼 여당 내에 강력한 정적이 있지도 않다. 강고한 조정 지지층이 있고 우호를 넘어 편애조차 하는 주류 언론들도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공약들이 이 시대 정신을 담고 있었다. 그 공약들은 다 어디로 던져 버렸나? 립서비스뿐이었던가? 약속의 정신은 어디로 가고 권력투쟁 본능만 남았나?

“여자라서 그런가?” 요즘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옹립하던 실버층·리더급 사회 인사들이 사석에서 입에 올리는 말이다. 제발,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를 여성이어서, 여성이기 때문이라 보지 말아요!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종교칼럼

풍선 밝기 게임



김성원 광주총교회 담임목사

세를 부르며 좋아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반 아이들끼리 놀 차례였습니다. 두 번째 반 아이들도 똑같이 풍선 밝기 게임을 했습니다. 이 반의 아이들은 약간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풍선이 주어져고, 모두 다 그 풍선을 받아 발에 묶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호각소리에 게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반 아이들의 게임은 이전 반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반 아이들은 서로 다투는 대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친구 앞에 자기 풍선을 내놓고 먼저 밝으려고 말합니다. 한 소녀가 자기 풍선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앉으니까 소년아 와서 그것을 밝아 터뜨리고 좋아합니다. 다시 그 소년아 자기의 풍선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앉으니까 소년아는 소녀가 그 풍선을 터뜨리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풍선을 모두 다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풍선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선도 금방 다른 친구에 의해 터뜨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풍선이 터지

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함께 만세를 부릅니다. 그 게임에서는 모두가 함께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 방법이 더 좋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 ‘무한경쟁의 사회’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일반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 가운데도 유난히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만 합니다. 양보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말하지요. 그와 같은 경쟁심이야말로 그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처럼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아무런 경쟁심도 갖지 않고 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성경적인 삶의 자세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세상에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경쟁사회의 구도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복한 세상의 본질이 아닙니다. 즉 나만 이기는 게임을 해 가는 사람은 항상 이길 수도 없을뿐더러, 한 번 이겼다고 그것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이기는 게임의 방법을 생각해내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경쟁에서 이기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자세입니다.

기 고

광주U대회에 거는 기대



김준영 광주시 대변인

활력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제규모의 스포츠 행사는 개최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특히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아틀란타, 사라예보 등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도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가 세계 144개 나라에서 1만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려하게 개막했다. 유니버시아드가 세계 대학생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다소 낮겠지만, 2015년에 열리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대회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광주U대회가 성공하면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이 ‘메르스 사태’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광주U대회가 갖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광주U대회는 전세계 대학생들이 2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글로벌 메가 스포

츠 이벤트로, 유사 이래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다.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대회기간에 선수, 임원 1만 3000여명과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 관광객 등 17만여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광주가 거둬들일 직접 경제 효과는 1000억원이 넘고 부가가치는 최대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선수촌이 위치한 화정동 인근 상가는 물론 상무지구와 충장로 등지에 외국인 손님이 북적대면서 거리는 활기를 띠고 숙박업소와 소풍센터, 먹자골목, 편의점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구촌에 광주의 모습을 인상깊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 144개 나라에서 참가한 1만3000여명의 선수단이 12일동안 광주에 머물면서 광주의 이모저모를 체험할 것이다. 이들은 자기 국가를 대표하는 체육 엘리트이자 스타들이다. 이들의 눈에 비친 광주의 모습과 이들이 가슴에 안고 돌아갈 광주의 이미지는 세계 각국에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광주U대회가 남도의 풍성한 문

화를 알리는 ‘컬처비시아드’를 지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남도의 문화와 예술, 맛과 멋,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마음껏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각국 외교관들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U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유망한 시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행사장에 오기 전 국립5·18묘지와 양림동을 방문했다”며 “광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개막식 중계 시청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광주U대회에 거는 국민적 관심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기보배, 손연재, 이용대 등 국민스타들과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들의 경기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대회기간동안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면서 외지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각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플레이에 애김없는 응원을 보낸다면 U대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광주는 국제도시로 성큼 도약하게 될 것이다.

社 說

요양병원 기동을 환자 생명과 바꿀 참인가

올해는 500여 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사업자는 4층 건물을 무리하게 5층으로 증축하면서 판매공간을 늘린다는 이유로 기동을 철거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 여기저기에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으나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결코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통계를 보면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건축구조물 붕괴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광산 첨단지구의 한 건물 주인이 건물 내 요양병원의 비상용 계단을 철거해 발생이 되고 있다. 어찌 구니없는 것은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계단과 기동을 없앴다는 점이다.

요양병원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환자들을 위한 비상용 계단을 없앤 것은 당연히 불법 행위다. 또 1층 점포와 비상용 계단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벽과 건

물 2·3층을 지탱하는 H빔(기둥)도 일부 철거되면서 사고 위험이 더욱 커졌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영락없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재판이 될 판이다. 해당 건물 2·3층에 들어선 요양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어 자칫 불상사가 날 경우 대형 참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도 당국의 관리 감독은 미온적이다. 해당 구청은 인근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현장 조사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청은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그제야 불법 용도변경에 관여한 건물주 등에 대한 조처를 약속하기도 했다.

병원 등 대중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多衆)이용시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불법 용도변경에 관여한 건물주 등에 대한 조처를 약속하기도 했다. 병원 등 대중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多衆)이용시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불법 용도변경에 관여한 건물주 등에 대한 조처를 약속하기도 했다. 병원 등 대중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多衆)이용시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불법 용도변경에 관여한 건물주 등에 대한 조처를 약속하기도 했다.

‘세계로 통하는 광주음식’ 확인시킨 U대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광주를 찾은 각국 선수단과 임원들이 남도의 문화와 음식에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별한 자랑거리가 될까 생각했던 김치나 사찰음식 등이 세계인의 정서와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번 U대회의 4대 컨셉은 친환경(Eco), 평화(Peace), 기술(IT) 문화(Culture)를 조합한 에픽(EPIC)이다. ‘평화 속에 문화가 넘쳐흐르고, 친환경 첨단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대화로 만들겠다’는 광주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광주와 호남의 문화 역량을 보여주고 전통문화유산 등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신화 창출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이곳 남도의 문화는 광주를 지구촌 젊은이들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내면서 성공 대회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선수단 팸투어가 인기

를 끌면서 당초 예상보다 참가 신청이 급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선수들 사이에 한국의 맛과 멋을 느끼려면 전통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양동·대인·무등 시장은 때아닌 특수로 인해 즐거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사찰음식 만한 행사를 경험한 갈리앙 FISU회장은 “산세와 사찰, 음식이 조화를 이뤄 맛은 물론 마음까지 좋았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함께한 참가국 대표단 등 200여 명도 꼭 다시 찾겠다며 ‘원더풀’을 연발했다. 이와 함께 팸투어 인기 장소인 김치타운의 김치 만들기 체험은 외국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아 ‘김치 전도사’ 양성 소로 불릴 정도다.

이번 U대회를 통해 우리는 김치와 사찰음식 등이 세계 무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는 광주리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남도 음식의 세계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

無 等 鼓

후배 차를 타고 가면서 오랜만에 상송 ‘장밋빛 인생’을 들었다. 에디트 피아프의 애절한 목소리. 음악 시간에 배웠던 ‘사랑의 찬가’나 뮤지컬에서 들었던 ‘빠담 빠담 빠담’ 등도 생각이 났다. 영화 ‘인셉션’에서 중요한 장치로 쓰였던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도 피아프의 노래다.

올해는 전설적인 두 명의 여가수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한 명은 상송의 대명사, 한 명은 재즈계의 여왕이다.

이런 대회에 참석하는 각국 외교관들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U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유망한 시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행사장에 오기 전 국립5·18묘지와 양림동을 방문했다”며 “광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각국 외교관들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U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유망한 시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행사장에 오기 전 국립5·18묘지와 양림동을 방문했다”며 “광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개막식 중계 시청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광주U대회에 거는 국민적 관심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기보배, 손연재, 이용대 등 국민스타들과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들의 경기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대회기간동안 시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면서 외지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각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플레이에 애김없는 응원을 보낸다면 U대회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광주는 국제도시로 성큼 도약하게 될 것이다.

망하고 만다. 그녀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쓴 노래가 바로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로 시작되는 ‘사랑의 찬가’다.

재즈계의 흑진주 빌리 홀리데이(1915~1959). 성대를 끊어대는 듯한 목소리로 부르는 ‘I’m a Fool to Want You’는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렵다. 사망하기 1년 전 녹음한 노래로 국내 광고에도 삽입된 바 있다.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그녀는 14살 때 목숨을 파는 ‘거리의 여인’이 된다.

우연한 기회에 노래를 시작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후 머리에 꽃은 치자꽃 장

식의 노래에는 사연이 있다. 대표작 ‘장밋빛 인생’은 물랑루즈 공연 당시 만났던 이브 몽팡과의 사랑을 노래한 곡이다. 부두 노동자였던 이브 몽팡은 피아프의 후원을 받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다가 버리고 떠나갔다.

또 다른 히트곡에 얽힌 사연은 더 드라마틱하다. 그녀는 미들급 세계 챔피언 수 마르셀 셰르당과 불 같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1949년 그녀를 만나기 위해 파리를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셰르당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사

망하고 만다. 그녀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쓴 노래가 바로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로 시작되는 ‘사랑의 찬가’다.

재즈계의 흑진주 빌리 홀리데이(1915~1959). 성대를 끊어대는 듯한 목소리로 부르는 ‘I’m a Fool to Want You’는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렵다. 사망하기 1년 전 녹음한 노래로 국내 광고에도 삽입된 바 있다.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그녀는 14살 때 목숨을 파는 ‘거리의 여인’이 된다. 우연한 기회에 노래를 시작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후 머리에 꽃은 치자꽃 장식의 노래에는 사연이 있다. 대표작 ‘장밋빛 인생’은 물랑루즈 공연 당시 만났던 이브 몽팡과의 사랑을 노래한 곡이다. 부두 노동자였던 이브 몽팡은 피아프의 후원을 받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다가 버리고 떠나갔다. 또 다른 히트곡에 얽힌 사연은 더 드라마틱하다. 그녀는 미들급 세계 챔피언 수 마르셀 셰르당과 불 같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1949년 그녀를 만나기 위해 파리를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셰르당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사

망하고 만다. 그녀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쓴 노래가 바로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로 시작되는 ‘사랑의 찬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 화 생 활 부 2200-66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매 케 링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